

니체의 디오니소스적 자연관에 의한 공간 특성 연구**

A Study on Spatial Characteristics by Nietzsche's Dionysian Outlook on Nature

Author 김은희 Kim, Eun-Hee / 정희원,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실내설계전공 석사과정
이 찬 Lee, Chan / 정희원, 국민대학교 동양문화디자인연구소, 국민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교수*

Abstract An interest in modern space is expanded to search for the relationship among human, space and environment, not limited the fixed or typical material place. For grasping and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and aims of modern space, this study is focusing on 'Dionysian outlook on nature' among the Nietzsche's philosophies. Nietzsche's 'Dionysian outlook on nature' based on his 'philosophy of creation and positiveness' has great implications for modern space because it focuses on not only circulation of existence and creation but also dynamic vitality the mostly. The reason is that modern space is required by the tendency changing the goal and aesthetic value by planner or user, not fixed and unchangeable any longer. The concept of space in modern construction is developed by forming various paradigms. Especially, various examples based on Nietzsche's Dionysian outlook on nature, philosophy of creation and positiveness, will be analyzed and possibility of new spatial concept's extension will be researched.

Keywords 니체, 디오니소스적 자연관, 생성, 해체, 역동, 감성
Nietzsche, Dionysian outlook on nature, Becoming, Deconstruction, Dynamic, Sensibility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0세기 이후 현대 사회에 들어 산업의 급속한 성장은 물질적 생활의 향상을 가져왔으나 기계 문명의 발달로 인한 기계론적 세계관은 환경의 위기3와 파괴를 초래하였고, 이는 자연과 환경 파괴를 넘어서 인간 사회의 지속적 존립이 위협받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양 철학은 전통적으로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는 세계관에 기반하고 있다. 그 근간이 되는 이성중심의 합리주의는 인간의 이성과 논리 중심의 해석을 바탕으로 자연을 비신격화하는 동시에 인간을 위한 도구로 간주해왔던 것이다. 따라서 데카르트(R. Descartes) 이후 서구 근대 과학(자연과학 외 인문, 사회, 경제까지)의 발달이 인간과 자연의 존재적 이분법을 전제로 하면서 오늘날 지구촌 환경의 위기가 초래되었다는 철학적 반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의식에 따라 다시 언급해야 할 것은 후기구조주의의 기반을 제공한 철학자 니체(F.W. Nietzsche)의 사유와 이론일 것이다. 그 속에 함의되어 있는 다양한 주장 중 특히 디오니소스적 자연관에 주목하고자 한다.

우선 니체의 초기부터 후기까지 중요하게 언급되는 디오니소스적 자연관을 통하여 니체 사상과 철학을 이해하고, 생태학적 사유의 출발점인 자연 관점에서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하여 오늘날 현대인에게 필요한 공간의 표현과 특성을 파악, 분석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데카르트에서 칸트, 그리고 헤겔의 형이상학에서 정점을 이루었던 서구의 근대성을 비판하고 오늘날 데리다, 푸코, 들뢰즈 등과 같은 후기 구조주의자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니체가 「비극의 탄생」,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등의 저서와 여러 편의 유고 단편집을 통해 주장한 영원회귀, 힘에의 의지, 위버멘쉬(Übermensch)¹⁾ 등과 함께 등장하는 디오니소스적 자연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lc@kookmin.ac.kr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411-J05001)

1)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힘에의 의지'를 '권력에의 의지'로, 또 '위

관의 개념을 문헌을 통해 고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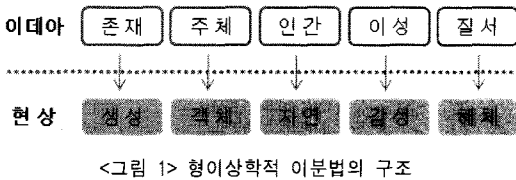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공간 개념과 연결되는 특성을 도출하고, 이렇게 도출된 특성과 연관성을 갖는 현대 공간과의 관계 및 특성을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획일화된 보편적 경향에서 탈피하여 형태적 다양화가 시도되는 20세기 이후 현대의 변혁기를 주도한 작품의 공간을 중심으로 니체의 디오니소스적 자연관에 함의된 사유 방식을 찾고자 한다.

2. 니체의 '디오니소스적 자연관'의 개념

2.1. 니체 철학의 개념

프리드리히 니체 Friedrich W. Nietzsche(1844-1900)는 독일의 철학자이며 '신의 죽음'과 '위버멘쉬' 등의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한 것으로 유명하다. 니체의 주서인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통하여 긍정의 철학 건설을 위한 건강한 미래 인간의 모습을 제시하였고 철학적 서술의 새로운 방식을 펼쳤다.

니체의 사유는 형식과 본질의 전통적인 형이상학적 진리 담론을 해체하며 탈근대적 사유의 길을 제시하고 푸코, 데리다, 들뢰즈 등 후기구조주의 사상가의 이론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되었다.



<그림 1> 형이상학적 이분법의 구조

(1) 생성과 긍정의 철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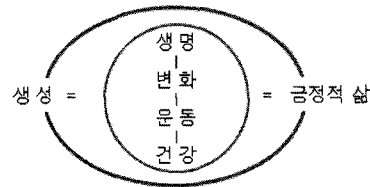
니체의 '신의 죽음' 선언은 서양의 지적 전통을 단순히 무력화시킨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사유이다. 간략히 말하자면, 존재와 생성 그리고 정신과 물질이라는 이원론적 형이상학을 파괴하고 새로운 실존의 개념을 설파한 것이다.

니체는 신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버리고 현재 인간이 처한 현실을 진실로 바라볼 것을 강조한다. 그리하여 허무와 절망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내적인 힘과 자기 구원에의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도출할 수 있는 '힘에의 의지'는, 인간의 사유와 행위를 포함한 자연 속의 모든 활동은 보다 많은

힘을 얻기 위한 의지로 환원된다는 내용으로서 모든 존재자의 존재 본질이 자연 현상을 가능케 하는 우주의 보편적 원리다.²⁾

이것은 생성과 존재가 따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같은 것이며 생명이 생성되어 존재하기 위해서, 즉 더 많은 힘을 추구하기 위해 매순간 변화하고 운동해야 하며 이를 통해 살아 있음을 위한 건강한 삶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이것은 다음과 같이 '긍정적 삶' '생성과 긍정의 철학'으로 이어진다.



<그림 2> 니체의 생성과 긍정의 철학

마찬가지로 허무주의 극복의 주체이자 건강한 인간에 대한 대표명사인 '위버멘쉬(Übermensch)'는 니체 철학에서 디오니소스적 긍정의 핵심이다. 니체에 따르면 생성을 부정하는 형이상학적 이원론을 비판하면서 디오니소스적 긍정의 철학을 펼칠 수 있으려면 건강해야 하고, 건강한 사람은 내가 사는 이 땅(대지)을 부정하지 않고 긍정하고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인간의 유한성도 긍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니체가 제시한 신의 죽음, 힘에의 의지, 위버멘쉬 등의 개념은 결국 한데 얽혀서 긍정의 철학으로 설명된다. 이것은 인간의 건강성과 더불어 생성적 세계와 인간에 대한 긍정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사유이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니체의 '영원회귀' 사상이다.

자연은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결국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온다는 영원회귀 사상은 역설적으로 지금 실존하는 삶을 긍정하며 살아간다면 그 삶은 그 정당성과 보다 더 큰 가치를 부여받게 된다는 주장이다.

(2) 니체와 후기 구조주의

니체는 당대의 전통적인 가치관인 플라톤적 사상과 그리스도교의 전통 철학을 비판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형이상학의 존재, 통일성, 동일성과 질서의 원칙이 적용되는 존재가 아니라, 반대로 차이, 생성, 변화 등 삶의 다양성과 다의성을 주장한 점이 당대 철학자들과 뚜렷이 구별되는 특징이다.

이성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 형이상학과 주체의 해체 주장, 비동일과 차이의 사유, 예술적 치유의 가능성 제시, 무의식적 주체의 형성 등 탈근대성의 담론³⁾은 여러 다양성을 인정하는 포스트구조주의의 세계로 향하는 문

버멘쉬 (Übermensch)'는 일본의 예를 따라 초인(超人)으로 옮겨왔고, 영어권에서도 superman 또는 overman의 뜻으로 번역되었다. 이는 초월적 인격으로 잘못 해석되어 니체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최근에는 '힘에의 의지(will to power)'와 '위버멘쉬 (Übermensch)'로 쓰이고 있는 추세이다. 본고에서는 참고문헌에 사용되었던 '권력에의 의지'와 '초인'은 모두 '힘에의 의지'와 '위버멘쉬'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2) 정동호 외, 오늘 우리는 왜 니체를 읽는가, 책세상, 2006, pp.113~114
3) 김정현, 니체, 생명과 치유의 철학, 책세상, 2006, pp.136~137

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니체 철학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20세기 초 유럽을 지배하던 후설과 메를로 폰티의 현상학에서 서구 형이상학적 사유의 모순과 하이데거의 실존주의, 마르크스주의 등 철학적 담론에서도 만족스런 답을 얻지 못하고 새로운 대안으로 1960년대 이후 니체의 철학적 사유를 재성찰하게 되었다. 그 영향은 유럽 특히, 현대 철학의 중심이 되는 프랑스의 지적 전통에 새로운 길을 제시하게 된다.

니체 이후의 데리다, 푸코, 들뢰즈 등 많은 후기 구조주의 철학자들이 그의 철학적 사유를 연구, 발전시키며 이전과 차별화되는 차이와 다원성에 대한 인정을 강조하였다. 새로운 종류의 철학을 창조하기 위하여 서구 전통 철학 고유의 틀을 깨고 극복함으로써 지금 현대 사회의 주류적 사유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는 현대 공간의 탈형식과 탈구조 방향의 원류를 니체에게서 찾을 수 있다.

2.2. 자연의 탈인간화와 인간의 자연화

루소(Jean-Jacques Rousseau)는 “자연으로 돌아가라”라고 처음으로 외쳤다. 루소는 과학 문명의 해악에서 벗어나 자연으로의 복귀를 요구했지만 정말 자연을 받아들이고 돌아가는 일은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루소 역시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리 와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했으며 많은 연구자들도 루소의 자연관은 또 다른 의미의 유토피아, 즉 그 어느 곳에도 없는 가상의 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니체는 루소에 반하여, 인간이 자신들을 길들여온 형이상학적 이념이나 종교적 신앙, 도덕적 가식과 같은 족쇄를 벗어 버릴 때 비로소 자연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⁴⁾

니체는 1881년의 유고 단편에서 자연의 탈인간화와 인간의 자연화를 역설하고 있다. 이러한 니체의 자연 사상은 이성 중심주의, 이성적 자아관, 주객 이분법 등 서양 근대적 사유의 한계를 넘어서는 탈근대적 사유 방법을 제시한다. 자연과 정신의 대립을 극복하고, 인간과 세계의 조화를 산출하는 자연 철학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⁵⁾ 이것이 현재 니체를 다시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자연의 탈인간화를 위한 니체의 시도에 대한 해석으로부터 현대 생태학을 위한 몇 가지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 서구의 종교와 근대 철학, 물리학, 정치학에 의해 부여된 초자연적(자연을 능가하는) 또는 도덕적(반자연적) 특성들은 자연으로부터 제거되어야 한다. 둘째, 그

대신 자연은 그 자체로서 완전한 전체 또는 완결된 힘, 즉, 니체가 차연적(differential)이며 힘들의 종합으로서 ‘힘에의 의지’라고 지칭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셋째, 자연은 다양성, 재생산, 차이와 방법에 관한 설명에 기여하는 ‘영원회귀’라는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인간은 다양한 힘들의 종합인 자연으로의 영원한 회귀를 필요⁶⁾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2.3. 니체의 디오니소스적 자연관

니체는 디오니소스 신화에서 찾을 수 있는 상징성에 주목하여 그것을 토대로 디오니소스적인 것이라는 철학적 개념으로 정립하였다. 죽음과 부활이라는 디오니소스 신이 가지고 있는 비극적이고 모순적인 캐릭터를 역설적으로 창조와 생성,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긍정과 삶의 상승, 삶에의 강한 의지를 ‘힘에의 의지’라는 개념에 귀속시켜 독창적인 해석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편 니체는 전통적인 세계관과 인간과 자연 간의 이원론을 비난과 거부하며 자연을 통하여 근대화의 비합리적 사고의 특징들을 제거하려 했다. 그리고 자연에 대한 근원적 의미를 강조하며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정체하지 않고 끊임없이 생성과 소멸을 통해 변화와 창조의 발전적 태도를 역설하였다. 인간의 삶과 자연은 많은 개별적 의지와 도전, 갈등이 있는 투쟁의 공간으로 변화와 창조의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이것은 디오니소스적인 것, 힘에의 의지, 영원회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상호교환하며 스스로 존재하는 세계로 이어지는 디오니소스적 자연관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디오니소스적 자연관은 자신의 삶과 이 세계를 긍정의 태도로 보고 유기체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인위적인 것에서 벗어나 스스로 창조하며 상승과 긍정적 사고를 형성한다. 이는 후기구조주의 사상가들이 철학적 사유의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고 또한 오늘날 인간과 자연 그리고 공간에서의 창의적인 조화와 다변적 경향을 보여주는 새로운 관점으로 나타나게 된다.

3. 니체의 ‘디오니소스적 자연관’과 공간의 관계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에 젊은 예술가와 건축가들이 반드시 읽은 철학자 단 한 명을 들라면 그건 니체일 것이다. 사실상 니체는 건축에 대해서는 거의 쓰지 않았고 시각적 예술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의 저작은 유겐트슈틸(Jugend Stil, 독일 아르누보 스타일)과 초기 모더니스트 건축가들에게 폭넓게 수용되었

4) 정동호, 위의 책, pp.107~113

5) 김정현, 위의 책, p.311

6) 최병두, 비판적 생태학과 환경정의, 한울 아카데미, 2010, p.400

다. 이들은 니체의 저서를 건축 이론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겼다. 여기서 다시 짚어보아야 할 사항은 니체가 공간 이론에 어떤 기여를 했느냐이다. 그가 공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거의 없지만 예술 이론은 앞으로 살펴볼 건축의 공간 이론들 못지않게 모더니즘 사상에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다.⁷⁾

니체의 디오니소스적 자연관에 대한 사유는 다양한 저서를 통해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으며, 초기부터 후기에 이르기까지 그의 사상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니체의 저서에 나타나는 디오니소스적 자연관과 조형적 접근을 통하여 현대 건축에 나타나는 공간 특성을 알아 보도록 한다.

3.1. '디오니소스적 자연관'의 조형적 접근

니체는 「이 사람을 보라」에서 「디오니소스적인 것」에 대해 “삶의 가장 낯설고 가장 가혹한 문제들에 직면해서도 삶 자체를 긍정한다. 자신의 최상의 모습을 희생시키면서 제 고유의 무한성에 환희를 느끼는 삶에의 의지”라고 정의했다.

철학적 개념인 「디오니소스적인 것」은 니체의 「긍정의 철학」의 기본 바탕을 나타내는 말이다. 동시에 니체의 초기 사유와 후기 사유를 관통하는 연속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 그리스 신화의 여러 신화적 상징 중에 디오니소스 신화⁸⁾에서 나타나는 삶과 죽음, 생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징성을 가지고 철학적 개념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몇 가지의 디오니소스 신화의 상징성과 니체 철학의 개념을 통하여 이와 연결되는 조형적 의미와 특성을 도출한다.

첫째, 디오니소스 신의 죽음과 부활의 양극성을 통해 니체는 인간 삶을 포함하여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일회적인 생명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지속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런 니체는 「비극의 탄생」에서 신화의 상징성에 철학적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데 그것은 생성하는 것은 영원하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생성하는 것만이 있고, 생성의 성격을 부정하는 존재는 있을 수 없다는 그의 생성관에 대한 철학적 정당화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니체는 생성을 부정하고 존재의 불변성을 강조 하였던 전통적 사유에서 탈피하여 영원회귀 사유를 통한 생성의 철학을 강조하였다. 변하지 않는 영원성과 질서, 일의성은 자연을 소외시키고 가치를 폄하하여 인간을 허무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보고 변화, 모호성, 다의성 등을 긍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생성은 얼굴 위에 나타나는 표

정처럼 표면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계절처럼 끊임없이 바뀌고 또다시 돌아오는 것⁹⁾으로서 위계적이고 강압적인 흐름을 탈피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연 환경 속에서 유기적인 관계와 새로움을 만들어낸다. 생성의 철학적 핵심은 현대 건축가의 사유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구조주의의 흡수와 대립 속에서 자연의 숨겨진 잠재성을 넘어선 새로운 접근과 생성 그리고 변화를 통한 새로운 공간을 창출해낸다.

둘째, 육체적인 찢김이라는 고통을 겪고 죽임을 당하지만 이후 부활한다는 이 상징적인 디오니소스 신화로부터 니체는 철학적인 의미를 도출해낸다. 그것은 파괴가 단선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순적인 개념인 부활로 전환됨을 강조하며 결국 전통성의 파괴와 해체라는 고통은 영원히 지속되는 삶의 필연적인 계기라는 점이다. 이때 파괴와 해체의 고통은 죽음이나 상실에 대한 아픔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쁨으로 변환하는 것이다.

니체는 “삶의 충일함이 더할 수 없이 풍요로운 자, 디오니소스 신과 디오니소스적 인간은 공포스럽고 의문스러운 것에 대한 주시를 허용할 뿐 아니라, 스스로 끔찍한 행위와 파괴와 해체와 부정의 모든 사치를 허용한다.”¹⁰⁾고 말했다. 의지가 있는 자, 긍정적인 자는 통일성과 일의적 전통적 사고에서 벗어나 스스로 더 나은 삶을 위해 해체를 통한 새로운 창조의 과정을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한 시대를 지배한 전통적 사상 개념인 「신의 창조」와 「존재」를 타파한 현대 철학의 패러다임 전환은 그동안 보여주었던 근대 건축의 단일화된 형식에서 벗어난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었다. 특히 근대 건축가들이 그동안 단순히 효율적 측면에만 관심을 두고 사용하는 인간의 내적 감성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간과한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결정론적인 사고방식에서 타파하고 다양한 공간 경험과 해석을 유도하는 창조적 건축의 다의성에 주목한다.

셋째, 고통의 순간에서 오는 몰락과 그에 대한 저항은 엄청난 역동성을 상징한다. 디오니소스에게 고통은 하나의 창조적인 맥박이다. 왜냐하면 그의 고통은 생동력의 강화와 증대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형태의 고통은 삶의 상승의 수단으로서 영원히 포함¹¹⁾되는데 이는 삶을 긍정하는 에너지인 힘에의 의지 개념을 통해 접근한다. 이 전환은 역설적으로 보이지만 그 자체로 유기적인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 반복과 순환은 결국 삶에 극도의 긴장감을 부여하는 동시에 생명력 획득을 가능하

7) 에이드리언 포터, 건축을 말한다, 이종인 역, 미메시스, 2009, p.415

8) 그리스로마 신화에 나오는 디오니소스는 제우스와 세멜레의 아들이자 로마시대에는 「바카스」로 불리었다. 헤라의 질투의 대상이 되어 계략에 의해 찢겨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를 아폴론이 하나씩 짜 맞춰서 제우스의 넓적다리에서 다시 탄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디오니소스는 죽음의 고통, 광기, 몰락 그리고 부활의 상징으로 해석되고 있다.

9) 장용순, 현대 건축의 철학적 모험-02.은유와 생성, 미메시스, 2010, pp.87~89

10) F. Nietzsche, 니체전집 15-니체 대 바그너, 이진우 역, 책세상, 2005, p.530

11) 정낙림, 니체철학에 있어서 디오니소스적인 것의 의미, 대한철학회 논문집 철학논총 제38집, 2004, p.439

게 해준다.

데카르트적 전통 사고의 질서와 규범적인 단순한 형태에서 벗어나 현대의 인간이 겪고 있는 무수히 많은 일들로 인한 심리적인 긴장감이나 혼란 등에 대한 표현은 다원적 조형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인간의 끊임없는 진화와 발전을 통한 상승적 의미의 역동적인 존재가 된다. 이러한 변화는 현대에서 비정형, 유동성, 불확정에 대한 패러다임이 형성되어 예술적 표현방법과 함께 등장한다. 물리적 힘의 변화가 아닌 시각적, 심리적 방법을 이용하여 생기를 불어넣는 역동성이 표현된다.

넷째, 죽음과 부활, 파괴와 분열의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고통 받는 디오니소스의 심리는 이성적 사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무절제하며 자아의식이 흔들리는 불안한 상태인 것이다. 니체는 이것을 디오니소스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감성적 현상으로 이해하였으며 이것을 도취(Rausch)라는 상태로 설명하고 있다. 불안하고 흥분한 상태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해마다 보면(경험) 자연과 공간의 현실은 모두 동일한 상태로 존재하듯 보였지만 상황에 따른 변화에 의해 평상시와는 다른 심미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그것이 흑여 의도하지 않았거나 낯설게 느껴지는 현실의 변형이라 할지라도 내적 감성의 변화를 느끼듯 공간의 체험과 새로운 경험으로 미적 공간 체험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자연이 보여주는 능동적인 유희일 텐데 니체에 따르면 인간은 새로운 삶의 형식을 조형하는 한편, 가상과 현실의 변형 그리고 그에 따르는 감성 속에서 적극적인 유희를 통해 새로운 다른 삶의 의지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이것은 후기 구조주의 이후 근대의 기계론적, 이성적, 논리적, 정형적 사유로 인한 인간 본성이 가지고 있는 감성에 대한 소외감과 한계를 극복하고 다의적으로 철학적 사고가 변화하면서 소외되었던 인간의 감성적인 부분이 공간 철학에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 그 후 인간의 정신과 만나는 매개체로서 감성 공간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 개념으로 인식하고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따라서 니체는 디오니소스의 신화에 나타나는 죽음과 부활, 고통과 파괴, 몰락과 저항, 도취와 환상을 단순히 비극적이고 절망적 망아 상태의 고통으로 해석하지 않고, 힘에의 의지적인 인간으로 극복하는 생성과 긍정의 건강한 모습으로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철학적 사유를 바탕으로 인간의 삶의 방식과 예술적 성향을 도출할 수 있다.

<표 1> 디오니소스의 신화적 상징과 철학 개념에 대한 조형적 접근

신화적 상징	죽음 / 부활	고통 / 파괴	몰락 / 저항	도취 / 환상
철학 개념	생성과 긍정의 철학			
	영원, 생성	전통성 파괴	상승의 수단	능동적 유희
공간적 특성	생성	해체	역동	감성

3.2. '디오니소스적 자연관'의 공간적 특성과 사례 분석

니체의 디오니소스적 자연관은 기본적으로 존재와 생성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단속적으로 보는 논리를 부정하고 변화와 그에 따르는 생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존재와 생성의 연속성, 인간과 자연의 공생, 긍정적인 삶과 의지를 통한 인간의 건강함을 보여준다.

니체 사후 100년이 지났지만, 그의 철학에는 자연 파괴, 본연의 인간성 퇴색 등 다양한 문제점이 표출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있으며 적용할 수 있는 요소가 많다. 이제 다양한 패러다임을 형성하며 발전하고 있는 공간 중 디오니소스적 자연관에서 도출된 공간적 특성의 경향과 관련 깊은 현대 공간의 사례¹²⁾와 특징을 고찰해보겠다.

(1) 생성 (Becoming)

생성(生成)의 사전적 의미는 운동이나 변화와 함께 정지·불변·존재에 대립하는 원리이다. 생성에 대한 철학적 담론은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는데 오늘날 니체의 영향을 받은 후기 구조주의 철학자 들뢰즈도 존재의 일의성을 주장하며 그 관계를 파악하는 개념으로 '생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긍정하는 철학으로 맥을 같이하며 발전시켰다.

House in Wales<그림 3>는 해안가에 위치해 있어 광활하게 펼쳐진 빼어난 해안선을 조망할 수 있는 주택이다. 건물은 지리적 형태를 반영하여 언덕에 살포시 엮어진 모습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연 속에서 스스로 존재하는 유기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 투명한 유리를 통하여 인간이 삶이 자연 속에 녹아들도록 디자인하여 자연과 인간 사이의 가시적인 경계나 구획을 나누지 않아 자연 변화의 가능성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생성의 시간, 경계, 공생의 특성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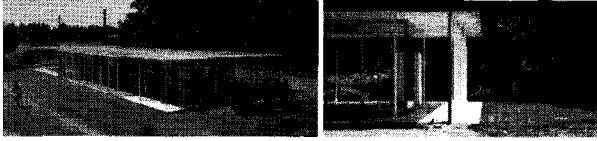


<그림 3> House in Wales, Future Systems, 1985

Koga Park Café<그림 4>는 내부의 공간에서 전통적 상징성과 방향성에서 탈피하고 바닥과 지붕 사이의 평행 공간은 물질과 경계의 단절을 배제하였다. 이는 탈중심적 공간을 통한 생성적 관계 형성 및 계절과 시간의 변화 그리고 공간 경험을 유도한다. 유리 마감의 투명성을

12) 니체 철학의 지대한 영향을 받은 후기구조주의 사상가인 들뢰즈, 데리다, 푸코 등의 '탈근대적 전환' 담론은 오늘날 현대 건축가의 공간 철학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SANAA, 렘 콜하스, 자하 하디드, 프랭크 게리, 다니엘 리벤스킨트 등 현대의 변혁기를 주도한 작가의 작품에서 생성, 해체, 역동, 감성의 특성을 찾아 연구·분석한다.

통한 내부 유입으로 변화하는 자연을 체험하는 동시에 자연과의 일체화를 시도하여 건축물을 자연 속의 일부로 계획했다. 이는 자연과 인간 그리고 공간의 조화를 통한 공생적 양상을 보이며 생성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4> Koga Park Café, SANAA, 1998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운하 키타카미와 강이 만나는 지점에 생긴 Kitakami canal museum<그림 5>은 땅 속에 묻힌 건축물과 자연의 모호한 경계를 형성하고 있다. 주변 지형과의 가시적인 경계를 배제하여 자연 환경과의 유기적인 관계에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낸 것이다. 주변의 산책로와 지하를 연결한 U자형의 통로는 자연과 인간이 상호 소통하는 구간이 되며, 자연의 리듬을 따르는 빛, 공기가 공간, 형태 등과 유연하게 어우러져 공생하게 하여 인간의 생기와 긍정적인 삶을 회복한다.



<그림 5> Kitakami canal museum, Kengo Kuma, 1999

이렇게 오늘날 현대 공간에서의 생성의 개념은 자연에서의 생물과 무생물 등 구성원들 사이에 끊임없이 순환을 유도하고, 위계적인 흐름에서 탈피하여 자연이 가진 잠재성과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공간 사이에 경계를 한정 짓지 않으며 변화를 통하여 유기적인 상호관계성을 갖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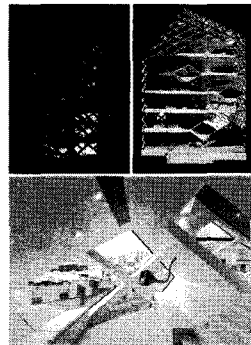
(2) 해체 (Deconstruction)

해체의 이론은 구조나 체제 등 조직 단위가 파괴되어 무너진 불안한 상태를 그대로 수용하고 그 자체를 다양성으로 인정하여 새로운 가치 창조로의 발전을 말한다. 전통적 건축 공간의 내용과 형식 및 구성들의 관계에서 벗어나 혁신적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해체를 통한 공간에서 다양한 방법과 새로운 접목을 통해 사용자의 경험과 의지로 발전시켰으며 이런 발전은 공간의 변형, 혼성, 해체, 변이 등 공간을 창조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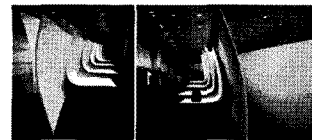
<그림 6> Seattle Central Library, Rem Koolhaas, 2004

시애틀 도서관<그림 6>은 도서관이 가져야 할 5가지의 주요 기능을 담은 플랫폼을 선정하여 우선 배치하고 그 플랫폼들 각각의 사이 공간은 사용자의 휴식과 정보 교환 등 상호 소통을 위한 불확정적인 열린 공간으로 만들었다. 이런 독립된 공간 사이에 중첩된 또 다른 공간은 다양한 동선체계 속에서 새로운 공간을 체험할 수 있는 창의적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된다. 이로부터 사용자 스스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관계를 성립하는 혁신적인 공간이 만들어진다. 렘 콜하스는 솔리드와 그리드 체계로 이루어진 근대의 질서 형식을 과감히 해체하고 독특한 방식의 프로그램을 창조한다.



<그림 7> PRADA Epicenter, Herzog & de Meuron, 2003

일본의 PRADA Epicenter<그림 7>는 서로 다른 다중의 수평적 레이어(layer)들이 중첩되어 새로운 관계성을 만들고 또 다른 독립된 공간을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Skip된 층간 구성은 각 층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층간 구별을 모호하게 하거나 하나의 연속적 공간으로 인식하게 한다. 이는 현실과 이상 사이의 공백을 매워주는 변이된 독창적인 공간 구성으로 보편적인 위계적 질서와 경계를 해체하고 공간간의 모호함으로 다양한 해석과 표현이 가능하다. 다중의 층들은 본래 가지고 있던 의미와 형태가 사라지고 다원적 의미를 부여하거나, 또 다른 이질적인 물질과 결합되어 변형된다. 공간의 전통적 보편성을 벗어난 창의적이고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 해체적 특성이 잘 나타나있다.



<그림 8> Neil Barrett Store, Zaha Hadid, 2008

닐 바렛 스토어<그림 8>에서 자하 하디드는 보편적인 벽체와 가구의 개념을 배제하고 기능성과 조형성을 혼성시켜 공간의 의미를 깊게 하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는 보편적 고정관념을 배제하고 단편적인 의미와 목적을 거부하는 해체 특성의 개념을 잘 나타낸다. 새로운 형태의 가능성을 보여주며 변화를 꾀하는 창의적이고 독특한 공간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혼성과 변이된 해체된 공간에서 위계와 질서형식의 전통성은 사라지고 불확정적이고 모호한 공간 속에 다양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하고 있다. 결국 전통의 파괴는 그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을 위해 혼란과 복잡함을 이해하고 이렇게 창조적 해체 과정을 통하여 융합을 가능하게 하였고 더 나아가 건축 외의 타 분야, 영역과의 결합에도 그 여지를 열어두는 것이 가능해졌다.

(3) 역동 (Dynamic)

힘차고 활발한 움직임을 뜻하는 역동성은 인간을 둘러싼 환경을 형성하는 수많은 인자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¹³⁾하여 다양한 해석과 창의적인 표현이 가능하게 되었다. 현대에서는 비정형적, 유동적, 불확정적인 과학적 패러다임과 함께 적극적인 예술적 표현방법으로 등장¹⁴⁾하였는데 다원화되고 복잡한 조형적 형태의 변화는 1990년대 이후 디지털미디어의 확산으로 인해 눈에 띄게 두드러져 점차 체계화되고 있다. 획일적인 성냥갑 형태의 건축에서 벗어나 부정형과 비선형의 다원화된 역동적 공간 형태로 표현되는 탈큐빅의 추세가 감지되고 있다.



<그림 9> Vitra Fire Station, Zaha Hadid, 1993

비트라 소방서<그림 9>는 구조적 질서를 벗어난 두 개의 비정형적 형태의 매스가 어긋나게 중첩된 모습을 하고 있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예각의 선형들은 판형의 매스를 떠받치고 있어 마치 공중에 떠서 비상하는 듯 보인다. 이는 보는 이들에게 시각적인 긴장과 속도 그리고 방향성을 제공한다. 언제나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소방서 건물의 특유의 성격을 반영하기 위해 수평과 수직을 배제한 비정형적 형태로 긴장과 역동적인 형태의 유동적 공간을 표현하였다.



<그림 10> Guggenheim Bilbao Museum, Frank O. Gehry, 1997

20세기 현대 건축의 대미를 장식한 건물이라고 일컬어지는 빌바오 구겐하임미술관<그림 10>은 역동적인 공간을 제시하고 있다. 건물은 여러 개의 긴 조각으로 해체되어 다시 조합된 형태이고 그 표면은 물고기의 비늘처럼 티타늄 판들로 덮여 있어 표피의 마감에서도 긴장감을 숨길 수 없다. 어느 방향과 각도에서 보든지 새로운 모습으로 신선하고 꿈틀대는 역동적인 형태로 나타나며 원통과 사각 형태의 블록을 붙여놓아 무질서하고 거칠어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부드럽고 자연스런 느낌으로 조화를 이룬다. 외부의 역동성이 공간 내로 연장되어 직선을 최대한 절제하고, 쉽게 예측할 수 없는 곡선으로 내·외부가 동일한 건축적 어휘로 표현되었다. 여러 방향으로 크고 작게 뻗어가는 힘과 충분한 자연 채광을 통해 상승적 의미와 긍정적 시각적 체험의 대상으로서 역동적

13) Gyorgy Kepes, Language Of Vision(시각언어), 유한대 역, 대광서림, 1984, p.44
14) 문정필·김기환, 프랭크 게리와 피터 아이젠만의 건축조형에 나타난 역동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제19권 제5호(통권 175호) 2003, p.142

의미가 크다.



<그림 11> Denver Art Museum, Daniel Libeskind, 2006

로키 산맥의 웅장한 전경과 조화를 이루며 덴버 시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덴버 아트 뮤지엄<그림 11>은 반중력적이고 긴장감이 느껴지는 파격적인 기하학 형상이 특징이다. 자유로운 선의 교차는 날개를 펴고 비상하는 듯한 탁월한 조형미를 보여주며 날카롭게 도려낸 것처럼 보이는 외부 창은 긴장감을 불러일으킨다. 외관을 구성하는 불규칙한 경사면 아래로 외관과는 달리 내부 전시장이 동굴처럼 아늑하게 구성되어 관람 동선 또한 물 흐르듯이 설계해 작품 감상이 편리하다. 혼돈과 분노를 풀어헤쳐 놓는 역동적 특성을 표출하는 작가의 철학은 낮은 시각 경험을 제공하여 흥미를 유발시키기에 충분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역동성의 의미는 위계적 질서와 규범의 정형성에서 탈피하여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표현법의 하나로 힘에 의지에 의한 생기를 불어 넣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는 진화와 발전, 다변화된 현대 공간에서 인간에게 시각적, 심리적, 신체적으로 다양한 체험과 감동을 주는 자유로운 조형의 지를 바탕으로 생동감 있는 형태를 추구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4) 감성 (Sensibility)

감성은 인간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작용으로 발생한 감각을 매개로 하여 어떠한 새로운 대상과 교감을 이룰 때 자극과 변화를 일으키는 느낌이라 할 수 있다. 현실의 세계는 늘 동일한 상태로 존재하듯 보이지만 상황에 따른 변화에 의해 평상시와는 다른 심미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특성이기도 하다. 그것이 설사 의도하지 않았거나 낯설게 느껴지는 현실의 변형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공간을 체험할 때 그 새로운 경험이 미적인 감성을 자극하게 된다. 시를 읽고 그림을 보면서 많은 내적 감성의 변화를 느끼고 유희하듯이 현대인에게 다의적 공간을 체험하도록 하는 감성 끊임없는 새로움을 생산하는 건축의 역할이 중요해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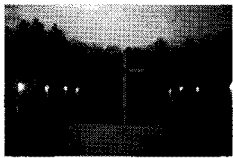
뛰어난 표현력과 감성을 가진 건축가 다니엘 리베스킨트는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그림 12>을 통해서 역사의 고통과 고뇌를 담은 기념비적인 건축을 만들어냈다. 예각이 반복된 구불거림은 마치 생명체와 같으며 접근할 수



<그림 12> Jewish Museum Berlin, Daniel Libeskind, 1999

없으면 좁은 틈새(slit)을 통해서만 엿볼 수 있는 건물의 연결 공간을 통해 이 공간은 부재의 공간이자 상징적으로 다가오는 이야기가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감성의 폭을 넓혀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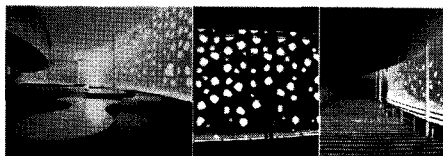
이렇게 건축은 단순한 의미를 벗어나 인간과 환경과의 끊임없는 관계를 가지고 다양한 언어로 소통하며 복합적인 큰 의미의 관계를 갖는다. 안도 다다오 역시 자신의 건축을 개념적 사고의 의미로만 부여하지 않으며 인간 신체와 여러 감각에 호소하고 장소적 성격을 부여하기 위해 자연의 요소를 삽입하고 있다.



<그림 13> Church of Water, Tadao Ando, 1988

물의 교회<그림 13>는 안도 특유의 콘크리트의 건축 재료와 물이라는 요소를 현대적으로 표현하여 대칭성이 강한 구성을 보여주었다. 이 건축에 담고 있는 중요한 자연요소인 물은 그가 추구하는 정신과 감성을 담아내는 공간을 구체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호텔 로비부터 출입구를 유도하는 T자형의 가벽은 연못까지 둘러싸고 있고 그 출입구에서 어두운 원형계단을 돌아 내려간 후 예배당에서 연못을 바라보게 하는 행위의 동선과 공간계획은 인간의 심리적 작용으로 인한 감각을 매개로 물을 상징적으로 재현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빼곡하게 심어진 나무로 둘러싸인 조용한 내부공간에서 수면의 정적인 공간을 창조했다. 따라서 이 공간은 비움을 통해 자연과 빛이 들어옴으로써 초현실적 자연의 새로운 경험과 영적인 감성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콘크리트 외관이 굽이치는 듯 완만한 커브를 그리며 서 있는 마츠모토 시민 예술관<그림 14>에서 벽면에 일정하지 않게 손으로 새긴 유리창들은 이 지역의 유명한 눈을 상징하고 있다. 이 불규칙한 보이드(Void) 사이로 빛이 내부로 유입되어 시간에 따라 공간의 변화를 주며 다양한 얼굴의 모습으로 표현된다. 벽면에 비추지는 빛이 시시각각 달라지고 그에 따라 변화하는 공간은 시·공간적 경험의 연속성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는 살아 숨쉬는 생명력과 같이 감성적으로 다가온다.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공간의 변화를 따라 움직이다보면 의도하지 않은 우연적인 내적 감성의 변화를 경험하는 동시에 독창적인 공간의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다.



<그림 14> Matsumoto Performing Art Center, Toyo Ito, 2004

현대는 근대의 이성과 논리적 사고에서 벗어나고 철학적 사고 유형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인간의 감성을 중시하는 사상적 기틀을 만들어가고 있다. 공간에서 느껴지는 오감과 상징성 그리고 특별한 경험은 인간의 내적 감성의 변화를 일으키며 공간의 다양한 미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인간과 정신이 만나는 매개체로서 감성적 공간은 현대 공간 연구에 중요한 개념으로 나타나고 있다.

3.3. 소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니체의 사상에서 주목할 점은, 전통적인 가치관의 파괴와 그로부터 시작되는 창조성이다. 현대 건축은 이 점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생성과 긍정의 철학을 기반으로 한 특성을 발전시키고 있다.

니체의 디오니소스적 자연관에 토대한 '생성과 긍정의 철학' 개념을 공간에 대한 조형적 접근으로 정리하자면, 생성, 해체, 역동, 감성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고, 이것은 다시 <표 2>와 같이 다양한 특성으로 개념의 의미를 뒷받침해준다.







<표 2> 니체의 디오니소스적 자연관에 의한 공간 특성 분류

공간적 특성	생성	해체	역동	감성
	시간 경계 공생	창의 다의 모호	불확정 비정형 긴장	오감 경험 상징

이러한 접근은 이미 여러 공간과 건축물에서 세부적인 특성으로 적용 사례를 찾아볼 수 있으며 현대사회에서 더욱 주목받고 각광받을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

<표 3> 니체의 디오니소스적 자연관에 의한 공간 특성 분석

신화적 상징	철학 개념	공간 특성	공간 분석		
			House in Wales	Park Café	Kitakami canal museum
죽음 / 부활	생성과 긍정의 철학	시간 경계 공생			
			변화하는 자연 속에서 순응하는 유기적인 형태	탈중심적 공간을 통한 생성적 관계와 자연을 내부 유입으로 시공간적 변화 경험	공간과 주변 환경과의 가시적인 경계를 배제하여 자연과 인간간의 소통
고통 / 파괴	해체	창의 다의 모호			
			질서형식을 과감히 해체하고 다양한 동선체계와 창의적 프로그램으로 혁신적 공간 구성	중첩된 다중 층에 의해 변이되어 만들어진 혼성적이며 모호한 공간 구성	보편적 특성을 배제하고 새로운 의미가 혼성되어 공간의 의미가 깊어짐

물락 / 저항	생성과 긍정의 철학	역동	Vitra Fire Station	Guggenheim Bilbao Museum	Denver art Museum
			 시각적인 긴장과 속도 그리고 방향성 전개	 역동적 표현은 내·외부에 동일한 어휘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유연한 공간구성	 파격적인 조형미와 자유로운 선의 교차로 방향성과 긴장감 형성
도취 / 환상	감성	오감 경험 상징	Jewish Museum Berlin	Church of Water	Matsumoto Performing Art Center
			 상징성과 역사적 의미를 통하여 소통과 복합적 의미부여	 초현실적 자연과 영적 공간의 경험을 통해 감성 확대	 시·공간의 경험은 내적 감성의 변화로 미적 공간 체험

4. 결론

본 연구는 독일 철학자 니체의 사상 중 특히 디오니소스적 자연관에 주목하여 현대 건축의 경향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혁명적인 철학으로 사상에 충격과 반성을 안겨준 니체의 사상은 한 세기가 지난 지금까지 영향력이 유효하며 물질문명의 폐해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재에 오히려 더욱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니체는 디오니소스의 신화로부터 죽음과 부활, 고통과 파괴, 물락과 저항, 도취와 환상을 발견하는 동시에 이러한 이분법을 넘어서서 힘에의 의지적인 인간으로 극복하는 생성과 긍정의 건강한 모습, 삶과 죽음의 연속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생성과 긍정의 철학' 개념을 바탕으로 공간에 대한 조형적인 접근을 할 수 있다.

인간과 자연 그리고 공간은 상호 매개적이고 유기적인 관계이다. 현대 공간에서는 위계와 질서의 형식을 과감히 해체하고 다양한 해석을 유도하는 다의적 측면에서 무엇보다 사용자의 개념을 강조하여 창의적인 공간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점은 건축의 탈규범 현상을 반영하는 동시에 다원화된 조형적인 시도와 내적 감성의 변화를 일으키며 공간의 미적인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것 등으로 반영된다.

이러한 조건들이 세부적으로 반영된 공간과 건축물의 사례들을 앞에서 살펴보았는데, 이들은 각기 목적과 배경은 다르지만 전통적인 건축의 규범을 넘어서서 다양한 적용과 효과를 보여준다.

인간과 자연 환경의 조화, 규격화되지 않은 창의적인 시도, 유연하면서도 다중적인 해석을 강조하는 관점이 강화되는 현재의 경향을 볼 때 니체의 디오니소스적 자

연관에 기반 한 접근과 고찰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1. F. Nietzsche, 니체전집, 정동호 외 역, 책세상, 2005
2. Gyorgy Kepes, Language Of Vision(시각언어), 유한태 역, 대광서림, 1984
3. 권영길, 공간디자인 16講, 도서출판 국제, 2001
4. 김정현, 니체, 생명과 치유의 철학, 책세상, 2006
5. 백승영, 니체, 디오니소스적 긍정의 철학, 책세상, 2005
6. 에이드리언 포터, 건축을 말한다, 이종인 역, 미메시스, 2009
7. 장용순, 현대 건축의 철학적 모형-02.은유와 생성, 미메시스, 2010
8. 정동호 외, 오늘 우리는 왜 니체를 읽는가, 책세상, 2006
9. 최병두, 비판적 생태학과 환경정의, 한울 아카데미, 2010
10. 김석영·김문덕, 질 들뢰즈의 공간담론에 기초한 렘 콜라스 실내공간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8권 3호 통권74호, 2009
11. 김수진, 현대건축 형태에 있어서 역동성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통권 29호, 2001
12. 문정필·김기환, 프랭크 게리와 피터 아이젠만의 건축조형에 나타난 역동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제19권 제5호 통권175호, 2003
13. 백승영, 신학적 상징과 철학적 개념-디오니소스와 디오니소스적인 것, 한국니체학회 니체연구 제12집, 2007
14. 양해림, 니체와 老子의 생태학적 자연관, 한국철학회 철학 제69집, 2001
15. 오영근, 공간디자인에서의 감성적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3권 2호 통권43호, 2004
16. 이도희,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건축적 사고와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3권 1호 통권42호, 2004
17. 이수미·김문덕, 현대 상업 공간 실내에 나타나는 해체주의 혼성의 공간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11권 2호 통권20호, 2009
18. 정낙립, 니체철학에 있어서 디오니소스적인 것의 의미, 대한철학회논문집 철학논총 제38집, 2004
19. 조한·김덕재, 들뢰즈 철학과 SANAA 건축의 비표상적인 생태적 사유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제26권 제6호 통권 260호, 2010

[논문접수 : 2011. 04. 30]

[1차 심사 : 2011. 05. 20]

[게재확정 : 2011. 06. 10]